

# 통번역사의 행정 업무 경험에 관한 예비 연구: 중앙행정기관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여주(가천대학교)

## 1. 서론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한 이래, 정부세종청사에는 2012년 국무 총리실(現 국무조정실)을 필두로 현재까지 총 45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각 부처는 통번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인하우스 통번역사를 자체 고용하고 있다. 부처 홈페이지 직원 검색 또는 채용 공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수만 해도 23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제외)에서만 총 60여 명에 달하는 영어 통번역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정부세종청사의 채용 공고를 종합하여 게시하는 나라일터에서 집계된 채용 공고만 보아도 2023년과 2024년 각각 24건, 20건의 지속적인 구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한 인력의 상당수가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유입되는 현실에서(홍설영, 2018, 2020) 수도권을 제외한 특정 소재지에서 이 정도 규모의 통번역 인력을 안정적으로 흡수한다는 것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정부세종청사의 인하우스 통번역사 채용 공고

---

\* 본 논문에 대해 귀중한 제안을 해주신 송연석, 유지선, 조재범 교수님 그리고 익명의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아있는 문제점과 오류는 필자의 책임입니다.

게시물을 살펴보면 주요 담당업무에서 ‘행정 업무’가 쉽게 발견된다. 국무조정실 통번역 전문관 공고(제 2023-160호)에는 “기타 ODA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 지원 이 명시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통번역원 채용 공고(제 2024-0452호)에는 “국제관광기구 협력 및 관련 사업 운영,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소관 업무 등이 담당업무로 기술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일례로 홈페이지상에서 공개된 기록(2022~2024)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는 “통번역, “국제기구 협력, “MOU 체결 지원 과 같이 인하우스 통번역사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업무만이 기술되어 있었던 반면, 2023년 공고에서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소관 업무 라는 문구가 처음 등장하였고, 2024년에는 해당 문구에 더해 “관련 사업 운영 까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채용 공고를 비롯한 각종 행정 자료가 대중에 공개되고 국가법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하기에 변화 자체에 보수적인 국가기관 특성상 해당 문구의 추가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앞으로 “행정 업무 지원 관련 유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통번역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확장적 업무(본고에서는 편의상 ‘행정 업무’라고 칭한다)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경험을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채용 규모 면에서 통번역대학원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진로 중 하나인 중앙행정기관에 초점을 맞출 경우, 현직 통번역사의 업무 양상 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진로를 설정할 통번역사에게 잠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기에 교육적으로도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 연구로서 종래의 전통적인 의미의 통번역을 넘어 행정 업무를 병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인하우스 통번역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 심층 면담을 통해 이들의 행정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행정 업무 병행의 배경과 동기를 살펴본 후, 통번역사로서 경험한 행정 병행의 이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이러한 경험이 통번역사로서 자각하는 지위와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통번역 주체

통번역학에서 통번역 행위나 결과물이 아닌 통번역 주체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번역학에서 언어 치환적, 텍스트 중심적 논의를 넘어 번역 주체와 번역의 사회성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진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로, 2000년대 이후 부상한 사회학적 전환(sociological turn)에서 그 윗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 경향 속에서 사회적 맥락과 체계 속에 속해 있는 번역 주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번역사의 역할 및 지위, 번역 주체와 사회 조건 및 구조의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Chesterman, 2006; Dam & Zethsen, 2009, 2013; Koskinen, 2009; Milton & Bandia, 2009; Pym et al., 2006).

국내에서도 2000년대 이후 통번역사 자체에 주목한 연구, 특히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업무 양상을 조명하는 연구가 다수 발견된다. 김중희(2015)는 민간에서 근무하는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직무 경험에 관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김현정(2015)은 부산광역시 통번역사의 업무일지를 중심으로 업무 내용을 분석한 바 있고, 김희란과 이지민(2018) 역시 대구시청 소속 통번역사의 사례 연구를 통해 지자체 통번역사의 다양한 역할을 탐구한 바 있다. 이지은(2017)의 경우 인하우스와 프리랜서 통번역사의 구분 없이 140명을 대상으로 통번역사의 직업 만족도를 설문하였으며, 임세인(2018)은 정부와 민간 양쪽 모두에서 연구 대상을 선정하여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직업 지위를 분석하였다. 홍설영(2018, 2019, 2020, 2021)은 일련의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컨설팅사 번역사, 방송 통번역사, 은행 통역사, 미술관 통역사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는 통번역사의 직업 적응과 정체성을 다양하게 탐구했으며, 이주연(2019, 2022)은 신입 인하우스 통번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경험과 직무 적응을 내러티브와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 있다. 이 중 이주연(2022)의 연구는 코로나19와 원격 통역이라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신입 통번역사가 업무에 적응하며 겪는 고충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시대적 조류의 전환기에 행정이

라는 낯선 업무에 적응해 나가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과 특히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한다.

다만 이렇게 민간이나 지방자치 단체 소속의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업무 내용을 조명하거나, 인하우스 통번역사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연구는 진행된 데 반해, 상당히 많은 수의 통번역사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인하우스 통번역사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그 중에서도 행정이라는 특수성이 통번역 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에서 출발하였다.

## 2.2. 시대적 전환

2016년 구글의 딥마인드가 선보인 알파고가 불러온 AI 신드롬은 정부 정책은 물론 기업 전략까지 수정할 정도로 당대의 뜨거운 화두였다. ‘알파고 여파’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관련 대응책이 시급히 모색되었고, 통번역학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송연석(2018)에 따르면 번역학계는 기계번역 시대에 발맞추어 포스트에디팅 및 기계번역 분석연구 등을 통해 학술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다방면의 대응에 나섰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국내 출간된 논문 키워드의 2위를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이 차지하며 관련 연구가 급증한 것 역시 국내 연구자들의 기계번역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유한내, 2020).

이러한 시류 속 통번역 업계와 학계 역시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가져온 기술적 전환(technological turn, Cronin, 2010; O'Hagan 2013)에 대응하기 위하여 번역과 번역 주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검토와 더불어 통번역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재진단하고 있다.

송연석(2018, p.136)은 신기술이 발명되면 기존 직업의 성격을 보완 및 강화한 직업이 창출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비전문가나 기계와 차별화되는 희소가치 있는 번역사에게 기회는 오히려 많아질 수 있다고 언급한다. 아울러 이상빈(2024, p.141)은 기술의 발전 추세를 볼 때 향후 번역가의 업무는 순수 번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번역과 무관해 보이는 주변 업무를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본연적 의미의 번역이 줄어들고 번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번역은 아닌 노동이 늘어나는 현상을

플래트닝(flattening)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통번역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재진단이 이루어지고 ‘플래트닝’이 진행되는 가운데 통번역사 업무 외연의 확장은 ‘기존 직업의 성격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까? 행정의 병행이라는 외연의 확장이 통번역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이라는 용어는 앞서 언급된 모든 업무를 포괄할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통번역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범위는 상당히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층 면담을 통해 이들의 직무 수행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대상

상이한 배경에서 행정 업무를 병행해 본 중앙행정기관 인하우스 통번역사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 이들의 경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각 부처마다 복수의 통번역사가 상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정 기관에서 여러 명을 섭외할 경우 자칫 단일 기관의 특성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세종청사의 한 부처에서 4년간 근무한 필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7개 기관에 근무하는 통번역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급여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아 신입 통번역사의 유입 가능성이 높는데, 실제로 회신한 6인 중 근무 경력이 1년 미만인 통번역사는 행정에 대한 직간접적인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채용 공고에서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는 변화가 목격된 만큼,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행정을 경험하거나 수용을 고민해 보았을 통번역사를 확보하고자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자들만을 대상으로 모집한 결과 총 3인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A: 자발적으로 행정 업무를 희망했으나 경험해 본 이후 이

직을 선택한 정부 기관 통번역사

연구 참여자 B: 행정 업무에 자발적이지 않지만 업무 분장상 과거 및 현재 행정을 의무로 병행하고 있는 정부 기관 통번역사

연구 참여자 C: 행정을 가급적 거절해 왔으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한 정부 기관 통번역사

연구 참여자 3인 모두 서울에 소재한 통번역대학원의 졸업생으로, 면담 당시 정부 기관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지닌 30대 통번역사로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 A는 가장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 업무를 희망하고 실제로 수행해 보았지만, 6개월의 경험 이후 행정 업무가 없는 타기관으로 이직을 선택한 통번역사이다. 연구 참여자 B의 경우 자의는 아니지만 채용 공고에 기재된 업무 분장상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통번역사이다. 연구 참여자 C는 행정 업무를 가급적 회피해 왔으나 최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통번역사로, 최초 요청에서 섭외를 고사했으나 이후 다시 참여 의사를 밝혀 연구에 다소 시차를 두고 참여하게 되었다.

### 3.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23년 9월경 최초 구상되었으며, 이후 섭외 작업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면담은 2024년에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 A와 B의 경우 2024년 12월 2일에서 20일까지 3주 사이에 두 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연구 참여자 C의 경우 2025년 2월 1일에서 12일 사이에 두 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시간은 연구 참여자의 퇴근 이후를 활용하였고 면담 대상자의 별도 요청으로 전화를 활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대면 면담을 기본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연구의 취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면담에 응했으며 정부 기관에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면담 내용에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부처명, 지명, 용어는 대체 및 익명화하였다<sup>1)</sup>.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에 따라 진행되었고 연구 참여자들의 답변에 따라 질문지의 순서와 무관하게

1) 각 부처에서는 인하우스 통번역사를 에디터, 자문관, 전문관, 사무관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칭하고 있다. 특정 단어는 일부 부처에서만 자주 쓰이는 관계로 본고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통번역사’로 일괄 표기한다.

추가 질문이 이어지는 유연한 방식으로 인당 1회 평균 40분씩 진행되었다.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표 1  
면담 질문지

<b>1. 행정 업무 수행 여부 및 동기</b>
- 귀하가 행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고민하게 된 계기와 배경은 무엇입니까?
- 현재 수행하고 있는 행정 업무에 대한 귀하의 인식과 태도는 어떠합니까? (예: 자발적 선택, 조직 내 요구 등)
<b>2. 행정 업무의 유형 및 범위</b>
- 귀하가 담당하는 행정 업무의 주요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입니까?
- 행정 업무가 통번역 업무와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거나 분리되어 수행됩니까?
<b>3. 행정 업무 수행의 이점과 한계</b>
- 행정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주요 이점이나 한계는 무엇입니까?
<b>4. 향후 행정 업무 수행 방향성</b>
- 향후 중앙행정기관 통번역사의 행정 업무 수행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행정 업무 수행이 통번역사의 직무 정체성과 지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보다 효율적인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환경적 개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사전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면담 종료 이틀 이내에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로 전사한 후 연구자가 원음과 대조하여 내용 누락 및 오류를 확인하였다. 완성된 전사본은 비정형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입력하여 핵심 단어 및 어구의 빈도를 추출하였다<sup>2)</sup>. 이 과정에서 면담 중 자주 언급되었으나 분석에 불필요한 동료의 직책, 감탄사, 의미 없는 반복 표현 등은 연구자가 수기로 제거하였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행정 병행 동기과 배경, 행정 업무의 이점과 한계, 통번역사로서 직업적 자기 인식에 대한 내용을 ‘업무 환경의 변화’, ‘통번역 퍼포먼스’, ‘네트워킹’, ‘지위와 정체성’의 총 4가지 범주로 정리할 수 있었다.

2) 전사에는 클로바노트, 빈도 분석 범주화에는 날씨마루를 활용하였다.

## 4.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직접 해석과 범주 합산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면담 내용을 전사한 후, 빈도 분석을 통해 총 4가지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각 범주에 연구자의 해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 4.1 업무 환경의 변화

세 연구 참여자 모두 행정 병행을 고려하거나 시작하게 된 배경으로 업무 환경의 변화를 꼽았다. 연구 참여자 A와 B는 연일 이어지는 기계번역과 빅데이터 담론 속에서 통번역사로서의 입지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저는 처음에 행정을 일부러 해 보려 했어요. 예전에 전문 영역의 통번역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초거대 데이터 과학이라 해야 하나, 최근에는 많은 데이터를 기계에 학습을 시키면 통번역도 인젠가 대체가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행정을 좀 해 보고자 했던 면이 있어요. 나의 시장가치가 없어질까 걱정되었거든요. (연구 참여자 A)

저는 “네가 하는 거 기계가 다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라도 행정 병행은 자기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게 될 상황은 안 하고 싶어도 이제 흐름상 하라는 식일 확률이 높죠, 현실적으로. (연구 참여자 B)

같은 맥락에서 연구 참여자 C는 그동안 자신의 방식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였다.

저는 후배를 생각해서라도 책임감까지 느끼면서 더 (행정을) 처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챗GPT 같은 게 워낙 범용화되었다 보니 일단 내부 번역 수요가 체감상 줄었고...일이 적어져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괜히 눈치를 보게 되더라구요. 스스로도 번역 역량이 퇴행할까봐도 걱정되고...번역 밖에 못하는데 번역 능력이 저하되면 어떡하지 싶고...부처에서 정년까지 있을 생각이면 업무량이 보장되어야 하는 건 맞고, 여길 나가게 되도 사기업은 더 멀티태스킹에 강한

인재를 바랄 것 같은데 이렇게 안주해도 되나 싶고...(연구 참여자 C)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여 통번역사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논의의 부상은 당연해 보인다. 변화하는 시대상의 ‘새로운’ 통번역사는 단순한 번역을 넘어 편집자, 그래픽디자인 전문가, 때로는 IT 전문가의 역할까지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Gouadec, 2007) 관점이나, 향후 번역가는 운영자, 경영자, 기획자, 조정자, 저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는 김순미(2018, p.27)의 논지가 더 이상 생소하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 인하우스 통번역사들이 수행하게 되는 다수의 역할은 광의적으로 보았을 때 통번역과 관련성이 전무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 종래의 협소한 의미의 통번역을 넘어 외연이 확장된 것만은 분명하다.

외국어와 연관성이 있기는 하나 “기술 관리, 각종 해외 사업진행, 사내 교육, 외국인에 대한 생활 지원, 외국인 관련 각종 노무 업무, 비서 업무 등 각종 행정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고(김중희, 2015) 있다는 인하우스 통번역사들의 사례나 통번역대학원 웹사이트의 구인구직 게시판에 올라온 채용 공고 357건 중 통번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직종이 전체의 19.8%를 차지(유한내, 2016)한다는 수치 역시 시대상을 반영한다.

세 연구 참여자가 조직 내에서 느낀 행정 병행의 필요성은 급변하는 환경 속 진화하는 통번역사의 업무 양상을 이해하는 데 시사점이 있다. 연구 참여자 A와 B가 행정을 경험하게 된 계기는 자의와 타의 면에서 상이했으나, 두 연구 참여자 모두 챗GPT로 대변되는 기계번역의 발전에 일정 정도의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언급했고 행정을 경쟁력 제고 차원의 도구로 해석하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C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A, B와 달리 C는 주변의 은근한 권유나 압박에도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고수해 오고 있었다. 통번역이 아닌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 본인이 생각하는 통번역사의 이상에서 위배되기도 하였고, 그 문화가 정착되어 후배들에게 전파되는 것까지도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본인이 고수하던 그 이상이란 결국 자기 안주에 머무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게 되었고 업무량의 불안정성을 줄여 기관 내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행정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다. 아울러 추후 국가기관보다 변화 속도가 더 빠른 민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역량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모습이었다.

#### 4.2 통번역 퍼포먼스

행정 병행의 이점과 관련하여 세 연구 참여자가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통번역 퍼포먼스의 향상이었다. 이는 행정과 통번역이 일반적으로 분리된 영역으로 인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업무가 통번역 실무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면담자료만 해도 제가 지속적으로 사업 자체에 관여되어 있으니까 몇 개의 버전을 제가 보고 또 보고...통역이 사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탁’ 치면 나올 정도로...번역도 그냥 읽어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에둘러 쓴 텍스트의 목적이나 주제가 실무진으로서 배경지식과 맥락이 많이 쌓인 상태이니 읽어내기 쉽고, 용어 등도 어떻게 번역해야 상대측에 가장 쉽게 이해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죠. (연구 참여자 A)

확실히 통역할 때 편해요. 행정 업무에 투입이 돼서, 그 사업을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 자료도 사실상 제가 쓰고...그래서 통번역 실제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상대방이 회의에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일차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월하죠...말씀 자료가 없다고 긴장되거나 하지 않아요. 통역뿐만 아니라 번역도 배경과 맥락 이해도가 상승이 되는 부분이 확실한 장점인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B)

연구 참여자 C는 행정을 수행하지 않는 통번역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러한 고충을 통해 행정 병행의 이점을 역설적으로 부각시켰다.

저는 사실 행정과 통번역 퍼포먼스는 반비례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통번역사라면 모두 공감하겠지만...자료 작성 다 되어 있으면서 막판까지 왜 그렇게 안 주는지? 그리고 공무원분들 보고서 보면 “~처리 “~이행 이런 식이잖아요. 처리라는 단어 자체의 중

의성도 문제지만 일단 옛날에 처리를 했다는 건지 앞으로 처리를 할 거란 건지 당최 답이 안 나와. 제가 일일이 물을 수 있는 환경 아니면 옛날 공문 접수된 것까지 찾아보면서 시제 찾아내다가 현타 올 때가 많아요...가끔 아, 내가 이거(행정 업무) 했으면 이렇게 묻고 찾느라 답 답할 일 없을 텐데 생각할 때도 있죠. (연구 참여자 C)

메시지가 함축적이고 우회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는 한국어의 고맥락 언어적 특성은 화용론의 주요 개념(Baker, 1992)—화자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전제(presupposition)’나 화자가 의미하거나 암시하는 ‘함축(implicature)’—등과 결부될 때 통번역사를 이중고에 빠뜨리기 쉽다. 인하우스 통번역사는 통역과 번역에 앞서 통번역 업무 수행을 위해 최대한의 정보를 입수하고, 업계 용어와 용법을 파악하지만, 해당 과업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관여되어 있지 않은 한 파악하기 어려운 맥락의 문제를 종종 마주하게 되곤 한다.

면담 결과 행정의 병행은 이 관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통번역 퍼포먼스에의 순영향은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행정의 이점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A, B는 실무자의 역할을 병행할 경우 맥락 파악이 중요한 통번역 업무 특성상 분명한 이점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이는 번역 브리프(translation brief)와 연관 지어서도 이해될 수 있다. 사용자가 기대하는 최적의 도착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조건들을 모은 번역 브리프는 그 중요성에 반해 실제 현장에서 명시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정호정, 2016), 번역사 대다수는 자체적으로 수집한 단편적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번역 브리프의 수신인 위치에서 주어진 일부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번역사와 달리, 해당 과업의 행정을 겸하는 통번역사의 경우 본인이 해당 통번역 브리프의 생산 주체, 즉 발신인으로 기능할 확률이 높은 만큼, 행정의 병행은 두 연구 참여자에게 ‘사용자가 기대하는 최적의 도착텍스트를 생산하기에’ 수월한 환경을 제공한 것으로 관찰된다.

아울러 참여자 A, B는 단순히 통번역이 용이해진다는 수준을 넘어, 무엇에 대한 언급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라고 추가 언급하였는데, 이는 통번역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통번역사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직 내에서 직업적 평판을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으로의 업무 외연 확장은 기존 직업의 성격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4.3 네트워킹

연구 참여자들은 행정의 이점과 한계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공통적으로 통번역 퍼포먼스와 관련한 논의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 다음으로 빈번하게 언급된 이점은 네트워킹 측면에서의 혜택이었다.

제가 실무자니까 면담이 잡히면 중간에서 컨택을 해요. 상대측, 우리로 따지면 국제협력 담당의 어떤 사무관이라 하면, 그분하고 컨택을 하고 또 대사관에 공보관하고도 자꾸 컨택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저를 모를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의 네트워 크가 조금 생기는 느낌? 사실 통번역은 한 번 하면 끝인 경우가 많은 데 행정을 하니...추후 제 앞일이 어떨지야 모르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좋았어요. (연구 참여자 A)

실무자 회의에 투입이 되면서 제가 평소에는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분들과 커넥션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죠. 그분들이 나중에 저를 (통역사로) 써주실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들과 접촉할 기회는 많아지죠. 개인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통번역을 한다는 스킬을 기본 베이스로 깔아서 행정을 같이 보게 되면, 어떤 국제회의를 나가거나 국제 행사를 나갈 때, 다른 국가 정부 대표단,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그냥 통번역사를 바라보는 것과 제가 어느 부처 소속이다, 너랑 나랑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지 않았나라고 했을 때, 그 뒤로 태도라고 할까, 대우가 조금 많이 달라져요. (연구 참여자 B)

이렇게 연구 참여자 A와 B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로서 네트워킹 차원의 이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한 반면, 연구 참여자 C는 행정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통번역사의 입장에서 경험했던 소외감을 공유했다.

제가 국제기구랑 주고받는 이메일에 CC가 되거든요. 저도 대강 흐름이

보이는데 실무자가 아니니까 제가 설사 그 메일을 번역해 줬다 한들 제 이름은 거기서 없잖아요? 나중에 리셉션 비롯해서 사람 만나고 할 때 나는 다 아는 이름인데 상대는 저를 모르고...저는 통번역사라고 소개하고...그럼 잠깐 그렇구나—스몰토크한 이후 뭐 이어지는 게 없죠. 딱 내 할 일 통번역만 하겠다 하면 좋은 건데...예전에 저는 그런 입장 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연구 참여자 C)

통번역 퍼포먼스 상의 이점에서 더 나아가 연구 참여자 A와 B 모두 네트워킹의 용이성을 또 다른 행정의 이점으로 꼽았다. 개인 간의 상호작용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흐름을 촉진하는 사회적 자본(Coleman, 1988)의 관점에서, 통번역사가 행정을 겸하는 실무자로서 상대방과 자주 연락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면 정보의 원활한 공유로 업무 효율성이 증진되었을 수 있고, 이는 해당 통번역사의 부가적인 업무 능력으로 환산될 수 있다. 아울러 상호 빈번하게 교류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킨 실무자들은 서로를 지원할 가능성이 더 높기에 호혜와 협력의 규범이 촉진되어(Bourdieu, 1985) 업무 협조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B의 경우 최근에 있었던 한 부처 행사에서 국제기구의 관계자들이 B라는 실무담당자를 찾고, 본인이라고 밝히니 그때부터 국제기구의 관계자들을 소개해 주고 네트워킹을 시켜주며 추후 국제기구 근무 의사가 있을 시 연락을 달라고 권유한 경험을 공유했다. 연구 참여자 B는 실무자로서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던 덕분에 상대방에게 ‘언어적인 감을 갖고 있고 행정실무까지 볼 수 있는’ 국제기구 인재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며, 다만 그런 기회들이 다른 커리어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전제가 깔려있을 때는 효과적이겠지만, 외연을 확장하기 원하지 않는 통번역사로서의 커리어 면에서만 봤을 때는 다른 문제 같다고 단서를 달았다. 연구 참여자 C는 반대로 본인이 통번역사로서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실무자와의 거리감을 언급하며 외연 확장을 고려하는 통번역사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 4.4 지위와 정체성

행정 병행의 한계를 묻는 질문과 통번역사의 정체성 및 지위에 관한 질

문은 별도로 제시되었으나, 모든 연구 참여자가 행정 병행의 한계를 통번역사의 정체성과 지위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A는 행정 업무를 통해 지위의 하락을 느꼈다고 언급한 반면, 연구 참여자 B는 일면 대우가 나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정체성 차원에서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내가 통번역사가 아니라 진짜 그냥 직원, 말단? 이런 느낌도 들었고, 예전에 통번역사였을 때는 뭔가 객관적 독립체였다면 지금은 잘하면 그냥 당연한 거고 실수하면 완전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그런 상황. (연구 참여자 A)

행정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더해져서 오히려 대우가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영어가 되는데 행정까지 가능한 것이다 보니 제 의견을 더 존중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들어갔던 회의 관련해서 팀장님이 기사를 보내주면서 이 기사가 어떻게 읽히는지 의견 조화를 하시는 거죠. 누구 말이 맞다고 쉽게 수긍하실 분이 아닌데... (연구 참여자 B)

통번역사는 과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외부인 같은 애매한 느낌이 좀 있는데, 확실히 행정실무를 보면 좀 더 소속된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대신에 통번역사로서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냥 영어를 잘하는 주무관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통번역사로서의 대우도 사실 잘 못 받고, 조직 생활에서는 제가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명확하게 구분되고 업무 분장도 구분되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B)

연구 참여자 C가 우려하는 부분 역시 연구 참여자 A와 B의 언급과 일관된 맥락에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C는 자신이 느끼는 소외감이 한편으로는 통번역사로서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 것처럼 느꼈다고 언급하며, 행정을 병행함으로써 그 경계선이 흐려지는 점이 본격적으로 행정 업무에 뛰어들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밝혔다.

저는 행정이 업무 분장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고 솔직히 통번역사가 아닌 주무관화 될까 봐 처음부터 꺼렸었구요. 네트워킹 측면에서도 그

랬지만 확실히 통번역만 하면 약간 걸둘게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직업상에서 크게 배치되지가 않았던거라...제 생각엔 과장님 포함 많은 분들이 통번역사에게 하는 의례적인 대우가 사실 어느 정도 외부인 취급을 하시니까 그래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행정을 하게 되었을 때 주무관의 영역과 겹쳐버리면 그분들 시점에서는 그 짐을 한꺼풀 내려놓으실 것 같고...그럼 회사 동료로서는 예전보다 걸둘지 않게 됨과 동시에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게 있다고 제가 과연 통번역사로서의 지위나 정체성을 그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연구 참여자 C)

실제로 통번역사라는 직군이 갖고 있는 ‘분리’의 장점은 이주연(2022)에서도 신입 통번역사의 사례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연구 참여자 A와 B는 이러한 분리를 넘어설 경우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향후 통번역사가 행정 업무를 보다 진지하게 병행할 경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향후에 만약 이렇게 통번역사를 행정 업무도 같이 하는 사람을 뽑고 싶으면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건 다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바라는 경향성이 있고 상등의 욕구라든가 자기 발전의 욕구 같은 게 올라오니까요. 저는 그런 시스템의 부재에서 한계를 느꼈고 이직을 선택했어요. (연구 참여자 A)

행정을 병행하게 된다면 사실 근본적으로 그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사실 행정을 병행한다고 해서 성과급으로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과로 잡히지도 않고. 말 그대로 실무 직원에 맞는 성과급, 인사이동이나 승진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부처는 실제로 행정 업무를 겸하여 사무관으로 승진하신 분이 있거든요. 일부러 사업이랑 행정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쟁력을 위해서...제가 행정을 혹시 더 한다면 아마도 궁극적으로 사무관 승진을 바라는 마음에서 선택할 것 같기는 해요. (연구 참여자 B)

앞에서 일관된 목소리를 보였던 것과 달리, A, B 두 연구 참여자는 통번역사의 지위 면에서 다소 상이한 대답을 보여주었다. 연구 참여자 A의 경우 행정실무를 겸했을 때 ‘말단 직원’ 정도로 소모되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지위의 하락을 언급하고 그에 합당한 평가가 가능하지 않았던 시스템의 부채를 언급했다. 제한적인 승진과 경력개발 기회가 직업 만족도 저하 요인(이지은, 2017)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체감하는 지위의 하락과 더불어 해당 기관 내 지위의 상승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미비했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행정 경험을 원했던 A가 이직을 결정하게 된 이유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B의 경우 통번역 전문가이자 행정 실무자로서의 역량까지 본 상사들이 본인의 의견을 더 존중해준다는 면에 주목하며 기관 내 지위의 상승을 언급했고, 아울러 연구 참여자 B의 근무 부처의 경우 행정 실무자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어필할 경우 승진이 가능하기에 궁극적으로 제도적인 지위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았다. 직업 지위의 변인 중 ‘인정(appreciation)’(Dam & Zethsen, 2009, 2013)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지위 상승으로 해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C의 경우 본인이 생각하는 행정실무의 단점이 지위 및 정체성의 문제와 맞닿아 있었다. 참여자 C는 행정실무를 하지 않을 때의 손실(네트워킹의 한계, 소속감의 결여)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조직 내에서 독립적인 존재로 기능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연구 참여자 C는 명확한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할 경우, 통번역사의 전문성과 직업적 정체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행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다고 언급하였다.

모두 정부 기관 인하우스 통번역사였음에도 연구 참여자들이 다른 시각을 갖게 된 것은 제도적, 조직적 맥락의 영향(Koskinen, 2009)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 참여자 A와 달리 연구 참여자 B는 평가 및 승진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자의로 행정을 병행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행정 업무에 대한 실망을 보이지 않았고, 이는 제도적, 물리적 환경에 따라 정체성이 다르게 확립되며 동기부여와 지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반대로 연구 참여자 A는 행정 업무를 수용함으로써 통번역사로서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승진 기회 및 경력개발의 한계에 부딪히고 상대적 지위 하락을 경험하면서 행정 업무에 대한 인식이 기존과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참여자 C 역시 행정을 병

행할 시 통번역사의 지위와 정체성을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자 본인이 생각하는 행정 병행의 한계로 지적했다.

## 5. 결론

정부세종청사는 인하우스 통번역사 채용 규모 면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그 안에서 근무하는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업무 양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그러한 중앙행정기관 인하우스 통번역사에 주목하여, 급변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외연을 확장하여 행정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통번역사들의 경험 분석을 통해 그 배경과 동기를 분석하고, 행정 병행의 이점과 한계를 살펴본 후 이 경험이 통번역사의 직업적 지위와 정체성에 갖는 함의를 탐구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인의 의지로 행정을 경험해 본 인하우스 통번역사와 업무 분장 상 규정되어 지속적으로 행정을 병행하고 있는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경험을 심층 면담을 통해 면밀하게 들여다보았으며, 추가로 행정에 대한 마음가짐이 바뀐 통번역사의 사례 역시 검토해 보았다. 심층 면담 결과 행정 업무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계번역과 인공지능 환경 속에서 통번역사가 추가로 갖출 수 있는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통번역 퍼포먼스 및 네트워킹 면에서 세 연구 참여자가 동일한 목소리를 내어 맥락 강화, 친교 증진, 소속감 제고 등 행정 병행의 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번역사의 지위와 정체성 면에서는 세 연구 참여자가 상이한 견해를 밝혔는데, 이는 우선 A, B 두 연구 참여자가 속한 제도적 환경의 차이에서 그 이유를 추정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을 병행하는 통번역사의 업무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평가 및 승진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아울러 그동안 연구 참여자 C가 행정 업무에 조심스러웠던 이유 역시 궁극적으로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업무 분장의 벽을 허물었을 때 본인의 지위와 정체성에 미칠 영향성을 우려했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예비 연구로서 중앙행정기관 통번역사의 행정실무 경험에 관

해 탐구하고 행정 병행의 이점 및 한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지위 및 정체성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인하우스 통번역사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추가로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통번역사의 변화하는 직무 양상을 검토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통번역 시장이 겪고 있는 필연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확장적 업무를 고민하는 현직 통번역사들에게 시사점을 제언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향후 통번역 전공 학생들이 직면할 수 있는 직무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논의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적응과 변화를 고려하는 현직 통번역사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향후 중앙행정기관 근무를 고려하는 인하우스 통번역사들에게는 업무 특성과 실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 (2023. 9. 26.). 제 2023-160호 [채용공고]. <https://bit.ly/3Fd11Ve>
- 김순미. (2018). 「AI시대 인간번역과 기계(NMT) 번역의 공존 — 경영학 ‘확장(Augmentation) 전략’ 중심」. 통역과 번역, 20(2), 1-32.
- 김종희. (2015). 인하우스(in-house)통번역사의 직무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일어일문학, 65, 111-127.
- 김현정. (2015). 인하우스통번역사의 업무내용 분석연구 — 부산광역시 통번역사 업무일지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67, 27-43.
- 김희란, 이지민. (2018). 지방 자치 단체 통번역사의 역할, 지위, 정체성: 대구시청 소속 통번역사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19(1), 7-31.
- 문화체육관광부. (2024.12.12.) 제 2024-0452호 [채용공고]. <https://bit.ly/43qyFyf>
- 송연석 (2018). 기계번역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번역학연구, 19(1), 119-145.
- 유한내. (2016). 통번역사 교육과 취업의 방향 제시를 위한 방안: 채용공고를

- 통해서. *통번역학연구*, 20(3), 51-75.
- 유한내. (2020).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국내외 통번역 연구동향 비교. *통역과 번역*, 22(1), 135-158.
- 이상빈. (2024). AI 번역 시대, 번역과 번역자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 *통역과 번역*, 26(3), 125-151.
- 이주연. (2019). 신입 인하우스 통번역사들의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통번역학연구*, 23(1), 117-142.
- 이주연. (2022). 신입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직무 적용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인문사회* 21, 13(3), 907-922.
- 이지은. (2017). 통역사의 직업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 프리랜서와 인하우스 통역사 비교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9(3), 85-109.
- 임세인. (2018).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직업지위 인식에 관한 질적연구-조직 내 직업지위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0(1), 147-176.
- 정호정. (2016). 번역과정에 있어서의 번역브리프와 번역결정 — 다국어사전 구축 번역에 대한 사례연구. *통역과 번역*, 18(3), 235-259.
- 홍설영. (2018). 컨설팅사 인하우스 번역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내적 갈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통번역학연구*, 22(1), 265-297.
- 홍설영. (2019). 방송 통번역사의 업무 적용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통역과 번역*, 21(2), 195-229.
- 홍설영. (2020). 신입 인하우스 은행 통역사의 직업적응과정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통번역교육연구*, 18(1), 213-243.
- 홍설영. (2020). 미술관 통역사의 직업 정체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통번역학연구*, 24(2), 255-288.
- Baker, M. (1992).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Routledge.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pp. 241-258). Greenwood.
- Chesterman, A. (2006). Questions in the sociology of translation. In J. Duarte, A. Assis Rosa & T. Seruya (Ed.), *Translation studies at the interface of disciplines* (pp. 9-27).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Dam, H., & Zethsen, K. (2009). Who said low status?: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translator status.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12), 2-36.
- Dam, H., & Zethsen, K. (2013). Conference interpreters — the stars of the translation profession?: A study of the occupational status of Danish EU interpreters as compared to Danish EU translators. *Interpreting*, 15(2), 229-259.
- Gouadec, D. (2007). *Translation as a profession*. John Benjamins Publishing.
- Koskinen, K. (2009). Going localised — getting recognised. The interplay of the institutional and the experienced status of translators in the European Commission. *HERMES*, 22(42), 93-110.
- Milton, J., & Bandia, P. (Eds.). (2009). *Agents of translation*. John Benjamins.
- O'Hagan, M. (2013). The impact of new technologies on translation studies: A technological turn? In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pp. 503-518). Routledge.
- Pym, A., Shlesinger, M., & Jettmarová, Z. (Eds.). (2006). *Sociocultural aspects of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John Benjamins.

## **A preliminary study on in-house translators' administrative work experience i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Yoejoo Lee** (yoejoolee@gmail.com)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achon University

###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in-house translators within government organizations, focusing on how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shape their professional experienc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ranslators who take on administrative tasks alongside traditional translation tasks, the paper examines how this role shift impacts their professional functions, identities, and the challenges and advantages they face. The findings highlight both the benefits and limitations of incorporating administrative work into the translators' core responsibilities. While administrative tasks are seen as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face of technological advancements, participants expressed differing views on their professional status and identity, shaped by the organizational contexts in which they work. This paper offers insights for aspiring translators, helping them navigate their career paths and develop a clear professional vision within government organizations.

**Keywords:**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house translators; roles and responsibilities; administrative work; preliminary study

**키워드:** 중앙행정기관, 인하우스 통번역사, 역할, 행정, 예비연구

206 번역학연구, 26(1)

이여주

가천대학교 영미어문학과 대우교수

yoejoolee@gmail.com

논문 투고일: 2025년 2월 14일

1차 심사 완료일: 2025년 3월 2일

2차 심사 완료일: 2025년 3월 8일

게재 확정일: 2025년 3월 15일